



총 3억원 규모 양록자조금사업 추진

- 양록자조금 사업계획서 제출, 승인 떨어지면 내년부터 시행가능 -

빠르면 내년부터 양록자조금 제도가 도입돼 양록산업 발전 기틀마련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회는 국내 양록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우수성 등을 홍보하는 한편 각종 양록연구사업, 소득구조 확대사업 등에 사용키 위해 내년부터 양록자조금 사업을 실시키로 결정하고 관련 사업계획서(안)를 농림부에 제출했다.

본회가 지난 4월초 농림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04년도 양록자조금 사업에 사용될 예산은 총 3억원으로 양록인들의 참여로 조성한 양록자조금 1억5천만원과, 농림부에서 축산발전기금 보조금으로 지급 받는 1억5천만원 등이다.

이렇게 모인 자조금은 국산녹용이 한의원이나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대중매체와 직접 홍보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세부계획으로는 국산녹용의 우수성을 라디오 광고를 통해 알리는 것은 물론, 팸플릿과 포스터 제작 배포, 각종 박람회 참가와 전시회 개최 등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녹용에 편중된 수입구조 개선을 위해 사슴요리 개발 및 시식회 등에 자조금의 일부를 사용할 계획이다. 사슴고기는 고단백, 저콜레스테롤을 육류로서 유럽

등지에서 각광받고 있음에 비해 국내 소비는 전무한 상태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요리개발 및 적극적인 소비홍보를 통해 녹용위주 양록소득 구조를 사슴고기 부문으로 확대하여 농가소득 제고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양록자조금은 ▲ 국산녹용 효능 연구지원 ▲ 품질차별화 및 생산비 절감 기술개발 ▲ 양록기술 및 유통정보 제공 ▲ 녹용등급판정 기준 개발 ▲ 사슴 질병방역프로그램 개발 ▲ 수입녹용 불법유통 감시 등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본회 김수근 회장은 "양록자조금 조성 사업은 양록산업 전체가 경쟁력을 갖추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강변하고 "자조금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 국내 양록산업 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현재 자조금제도를 도입한 축종으로는 양돈, 양계, 낙농, 한우 등이며 이들은 생산자 스스로 자조금을 조성, 대중매체 홍보 등을 통해 소비 활성화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 용역에 사용함으로써 안정적 산업 기틀 마련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양록**